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271호 【루계 제24684호】 주체103(2014)년 9월 28일 (일요일)

# 천만군민의 애국의 열정과 지혜, 슬기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 철령아래 청춘과원에 쇠그물울타리치기 시작

### 고산과수농장 능력확장공사에 떨쳐나선 618건설돌격대에서

철령아래 세계굴지의 청춘과원으로 일떠서고있는 고산과수농장에서 쇠그물울타리치기가 시작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심장에 새기고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쇠그물울타리치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9월말까지 30㎞, 올해안으로 과수원 전체 면적에 대한 연 110여㎞구간의 쇠그물울타리치기를 무조건 끝낼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시작부터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쇠그물울타리를 끌내면 고산과수농장은 경영관리에 유리하면서도 현대적인 청춘과원의 면모를 갖춘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서의 자태를 더더욱 드러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산과수농장에서 경영관리를 잘하자면 쇠그물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설되고있는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시고 쇠그물울타리공장을 건설하여 과수발변두리와 도로주변에 쇠그물울타리를 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지난해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발기하신 쇠그물울타리공장을 일떠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 발해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또다시 새로 건설한 쇠그물울타리공장을 찾으시고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쇠그물울타리치기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의 높은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결사의 각오를 안고 분

또한 자재보장사업에 큰 힘을 넣어 쇠그물울타리생산과 기초공사를 앞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여 모든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쇠그물울타리치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확히 꿰들고 공사를 힘있게 내밀도록 하였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공사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쇠그물울타리치기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기 위한 혁신적인 방도들을 찾았다. 일군들은 지형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쇠그물울타리를 질적으로 칠수 있게 설계를 완성하였다.

쇠그물울타리생산과 기초공사가 힘있게 벌어졌다.

쇠그물울타리공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백두밀림에 차넘쳤던 불굴의 기상,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며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이들은 전투목표를 계획보다 1.5배로 높이 세우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나갔다. 또한 연신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자검자수체계를 철저히 세워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다. 결과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쇠그물울타리생산을 앞세워나가고 있다.

량강도광업련합기업소련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것을 과시한 《마식령속도》창조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생산적앙양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9월에 계획된 콩크리트기둥생산을 앞당겨 끝냈다.

울타리기초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당의 의도대로 섬멸전, 립체전을 벌려 쇠그물울타리치기를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해제끼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기초공사를 앞세우는데서 찾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도로옆구간에는 지반의 수평을 보장하여 쇠그물울타리를 직선으로, 등고선을 따라 10°이상 되는 구간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며 다른 형태로 규모있게 칠수 있게 기초공사계획을 세웠다. 또한 기초콩크리트를 친 전구간을 흙으로 덮고 자체로 키운 잔디를 심기 위한 혁신적인 방도들도 내놓았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 쇠그물울타리를 질적으로 칠수 있게 기둥사이간격을 정확히 보장하면서 든든하게 고정하도록 기술적지도에 힘을 넣었다. 정치일군들이 선전선동수단들을 총집중하여 농장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표준농장으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과수농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벌리여 전투장에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도록 하였다.

평안북도, 자강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무슨 일이나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해제끼는 단숨에의 정신으로 기초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도로정리를 앞세우면서 암거공사를 진행하여 울타리주변에 배수체계를 철저히 세웠다. 그리고 기초파기와 콩크리트치기, 울타리기둥고정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잔디입히기도 따라세워 쇠그물울타리치기를 중단없이 내밀도록 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쇠그물울타리치기전투장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함경북도려단에서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 무릉도원의 면모에 맞게 쇠그물울타리를 손색없이 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현장지도에 품을 넣고있다. 돌격대원들도 그날계획은 그날로 수행하며 쇠그물울타리치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안남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높은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휘하여 곡선구간의 쇠그물울타리치기를 힘있게 내밀면서 일정계획을 사흘이상 앞당겨 수행해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 전력, 석탄공업부문의 증산투쟁을 적극 고무추동

### 성, 중앙기관들에서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하루빨리 풀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전력, 석탄공업부문 로동계급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실천투쟁에 뛰여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정으로 애국을 하려면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화력탄보장의 큰 몫을 맡은 서부지구의 중요탄광들에 대한 지원열기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 전자공업성, 국가해사감독국에서는 당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즉시 해당한 조직사업을 진행하여 조양탄광의 석탄증산과 생산공정현대화에 필요한 전자요소, 철판과 축강 등을 마련하였으며 책임일군들이 직접 현지에 내려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증산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기계공업성, 륙해운성의 일군들은 500개의 탄차베아링과 절연선, 절연물 그리고 후방물자들을 가지고 천성청년탄광에 내려가 탄부들을 고무추동한데 이어 탄광에서 현재 진행중인 2단계 벨트콘베아공사에 필요한 수천m의 벨트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국토환경보호성, 잠업비단지도국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마련한 다이야, 전력까벨 등을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형봉탄광의 탄부들에게 보내주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수산성, 상업성, 체신성, 국가건설감독성의 일군들은 석탄생산에 이바지할 기공구들과 쇠바줄, 베아링, 동발나무 그리고 많은 로동보호 및 후방물자들을 안고 봉천, 월봉, 남덕, 인포탄광과 득장청년탄광을 찾아가 화력탄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탄부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었다.

흑령탄광에 내려간 수도건설위원회, 도시경영성의 일군들은 갱건설과 굴진에 필요한 수십t의 세멘트와 착암기들을 지원한데 이어 중량급화물자동차들을 이곳 탄광에 고정적으로 동원시킴으로써 긴장한 석탄수송문제를 푸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건설건재공업성, 대외건설지도국, 재정성, 수매량정성, 보건성, 문화성에서도 탄광지원을 위한 조직사업을 기동적으로 하여 2.8직동청년탄광, 회안탄광, 제남탄광, 덕성탄광 등에 귀중한 자재들과 많은 후방물자들을 보내주었다. 이밖에도 금속공업성, 국가과학원, 식료일용공업성, 경공업성, 국가자원개발성, 로동성, 중앙통계국 일군들과 정무원들도 성의있는 지원물자들을 안고 서부지구의 여러 탄광들에 내려가 탄부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현시기 전력증산의 큰 몫을 맡고있는 화력발전부문의 로동계급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한 사업에도 성, 중앙기관들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전력공업성의 책임일군들은 해당 부문과의 련계밑에 마련한 200여t의 선철과 철판, 용접봉을 싣고 지난 16일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에 직접 내려가 이곳 로동계급의 화력설비 보수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기계공업성에서는 화력발전소들의 대상설비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동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책임일군들이 직접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내려가 일군들과 진지하게 토의하여 미루대치차소재예비도 찾아내고 현지에서 그 수송 및 생산조직을 진행하였다. 상업성과 인민봉사총국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특색있는 후방

인민보안부의 일군들은 지난 16일 근 500t의 파철과 철판 그리고 많은 량의 후방물자를 마련하여가지고 순천화력발전소를 찾았으며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전력증산투쟁에 떨쳐나선 그곳 전력생산자들의 전투적열의를 백배해주었다.

각종 피대와 고무호스 등을 싣고 청천강화력발전소를 찾은 화학공업성 책임일군들과 정무원들도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수호전의 한개 초소를 더욱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도록 이곳 로동계급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한사람같이 호응하여 전력, 석탄공업부문 로동계급의 증산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의 조직사업과 지원열의는 날이 갈수록 더욱 구체화되고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춘

## 가을밀, 보리심기 활발

###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두벌농사를 잘하여야 합니다.》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 가을밀, 보리심기가 한창 진행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자면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는것을 자각하고 가을밀, 보리심기를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가을밀, 보리심기를 위한 도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옹진군에서 진행되였다. 보여주기사업에서는 지대적특성에 맞는 품종배치, 포전 및 종자준비, 씨뿌리기 등 기술적문제들이 강조되였다. 특히 올해의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보리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한 옹진군의 경험이 소개되였다.

보여주기사업에 이어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이 시, 군협동농장들에 내려가 밀, 보리심기가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기술지도를 잘하고있다.

도의 농촌들에서 밀, 보리심기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그 앞장에 옹진군이 섰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일군들은 다수확품종의 보리종자를 자체로 넉넉히 확보한데 맞게 모든 협동농장들이 과학기술적으로 가을밀, 보리를 심도록 하고있다. 군의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가을걷이를 하는 차제로 적지를 바로 정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씨뿌리기를 진행하고있다.

배천군과 연안, 재령, 안악군을 비롯하여 당면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 앞서나가고있는 단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가을밀, 보리심기에서 적기를 놓치지 않고 여러가지 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밀, 보리심기를 알심있게 하고있다.

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시기 밀, 보리농사에서 앞선 단위의 경험을 본받아 씨뿌림면적에 따르는 종자확보와 종자처리, 포전준비 등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일정대로 밀, 보리심기를 진행하고있다.

도의 농촌들에서는 부림소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여 벼가을을 끌내는 차제로 논밭갈이를 함으로써 밀, 보리심기에 지장이 없게 하고있다.

연안군 읍협동농장이 해마다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냄으로써 앞그루농사에서 좋은 결실을 안아오고있다. 도의 농촌들에서는 이 단위의 모범을 따라배워 포전마다 거름을 넉넉히 실어내고 가을밀, 보리심기를 하고있다.

보리농사를 많이 하고있는 강령, 옹진군과 은률, 벽성, 은천군을 비롯한 도의 다른 군들에서도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계획된 면적의 보리심기를 적기에 끝낼수 있게 하고있다. 특히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열의를 적극 높여주고있다.

특파기자 리승철

## 중요물동수송에 력량을 집중

### 함흥철도국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짐을 제때에 실어다주어야 합니다.》

함흥철도국에서 중요물동수송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석탄을 비롯한 중요물동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짐을 제때에 실어다주고있다. 그리하여 매달 계획을 103~105%이상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년초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한결같이 떨쳐나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철도국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들끓는 현장들에 나가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고있다.

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철도국앞에 맡겨진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함흥객화차대와 함흥철도차량부속품공장, 단천, 고원, 원산철도분국들에 나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기술자, 기능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는데 힘을 넣으면서 증송투쟁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철도국아래 여러 단위들에서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놓고 화차수리와 기관차수리, 철길강도를 높이는 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고있다.

함흥객화차대와 함흥철도차량부속품공장, 함흥교무가공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차량부속품과 철길고착품생산기지를 그쯘하게 꾸려놓고 화차수리와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고있다. 단천청년전기기관차대, 고원전기기관차대, 원산기관차대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관차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수리전투를 힘있게 벌려 실동기대수를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며 나라의 동맥인 철도수송을 맡고있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철도국의 일군들은 수송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공명국, 리정길, 주성일동무를 비롯한 수송지휘처의 일군들은 인민군대와 같은 강철같은 규률을 세우고 여러 부서와의 련계밀에 철도국의 전반적인 수송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최명철, 정성균, 한철호동무를 비롯한 사령장, 사령원들은 해당 철도역들의 실정을 수시로 료해장악하고 역사령원, 운전지휘원들과의 긴밀한 련계밀에 차갈이와 화물렬차를 맞고 떠나보내기 등 모든 문제를 능숙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단천청년전기기관차대의 《붉은기》1호, 5358호, 5004호, 고원전기기관차대의 《붉은기》5389호, 5399호, 5411호를 비롯한 여러 기관차승무조원들은 단천지구와 흥남지구의 공장, 기업소들에 석탄과 석회석, 마그네사이트를 비롯한 중요물동을 실어나르기 위한 투쟁을 긴장하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원산기관차대의 기관차승무조원들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과 고산과수농장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필요한 물동수송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 장천지구가 온실남새생산의 본보기로 변모된다

### 평양시에서

장천지구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새로운 온실들을 바라보아도 그렇고 시간마다 키돋움하는 소층아빠트들과 공공건물, 아담하게 들어앉는 문화주택들을 둘러보아도 어디서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하루전의 실적이 오늘에는 낡은것이 되고 시간마다 그 면모가 달라지는 창조와 건설의 벅찬 숨결이 온 장천땅을 들끓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6월 9일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장을 21세기 온실남새생산의 본보기농장으로 훌륭하게 꾸릴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시당위원회에서는 방대한 면적에 현대적인 온실들을 질적으로 더 많이 건설하고 농장을 21세기 표본농장으로 꾸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강력한 지휘부를 꾸리고 온 시가 떨쳐나서 온실건설과 소재지건설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끌낼 높은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에서는 넓은 면적에 토벽식박막온실 20동, 궁륭식박막온실 150동을 건설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시의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미 토벽식박막온실들의 기초굴착과 기초콩크리트치기, 온실벽체축조가 끌난데 이어 온실내부공사도 전반적으로 끌나고 트라스설치와 휴계실들의 타일붙이기, 온실내부물탕크공사와 외부벽체보온재붙이기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궁륭식박막온실건설도 힘있게 추진되여 완공의 날을 눈앞에 두고있다. 현재 150동의 궁륭식박막온실들의 지대정리와 토량처리가 전반적으로 끌나고 기둥콜조설치와 아치골조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와 함께 이미 건설해놓은 수십정보의 온실개건보수전투도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9월 중순까지 련동식온실들의 외부벽체미장과 물탕크보수, 기능성세겹박막씌우기, 창문교체작업을 전부 끝냈다. 토벽식박막온실들의 외부겉음길포장과 온실뒤벽체상판미장을 끌내고 보온대책도 세웠다.

또한 궁륭식온실들의 기둥기초콩크리트치기와 아치골조보수, 출입문들을 새로 교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건설에 떨쳐나선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1만여㎡의 룬환선 및 지선도로의 로반공사와 규모가 큰 2개의 양수장건설을 완성하고 수로공사와 굴포 및 물탕크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농장소재지를 새 세기의 표본으로 꾸리기 위한 건설전투장들에서도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건설장에 달려나온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기초콩크리트치기와 골조공사에서 련일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현재 소층아빠트들과 단층살림집, 공공건물들의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가 거의 끝나고 벽체축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일부 구역과 단위들에서는 벽체축조를 마감단계에서 하고있으며 단층살림집건설을 맡은 많은 단위들에서는 지붕공사까지 끝내고 내부공사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 혁명적인 투쟁기풍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장천지구는 21세기 표본농장으로 훌륭히 일떠서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이며 인민생활 향상대진군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김 정 은

## 부강조국건설의 길에 나래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동해기슭에 자리잡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희한한 전변으로 세상의 시선을 모으고있는 이곳에 그저는 지날수 없는 뜻깊은 창조물이 있다.

급강하물미끄럼대!

동해명승의 바다물빛 같기도 하고 내 조국의 맑은 하늘빛 같기도 한 유난히 푸른색에 곡선미도 아름다운 급강하물미끄럼대는 누구나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대동강》이라는 우리 상표와 더불어 빛을 뿌린다.

그것은 우리 힘과 우리 기술, 우리 의것을 자랑하고있다. 설사 줌안에 드는 바늘 한쌈지일지라도 내 나라의 제품은 우리의 민족적자존심을 충만시켜준다.

국내산 급강하물미끄럼대!

우리의 힘과 기술로 물미끄럼대를 제작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에서는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단숨에의 정신으로 만들어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아주시고 급강하물미끄럼대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작하였는데 잘 만들었다고,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지금 자력으로 경제강국에로 치달아오르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길에서 우리 힘, 우리 기술에 기초한 새로운 제품들이 수많이 개발생산되고있다. 급강하물미끄럼대는 그중 하나이다.

하지만 온 나라 일군들과 각지의 생산자대중이 국내산 급강하물미끄럼대에 그처럼 관심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무릇 한가지에서 열백가지를 헤아릴수 있다.

국내산 급강하물미끄럼대에서 사람들이 너나없이 받아안는 충격은 자못 크다.

지금 전국각지에 물놀이장들이 일떠서고있다고,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비롯한 각종 물놀이기재들을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질좋은 물놀이기재들을 만들자면 설계를 다양하고 특색있게 하며 원자재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자력의 억척기둥을 다시금 높이 세워주고있다. 물미끄럼대제작을 통해서도 제힘을 믿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다시금 실증되였다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은 남을 쳐다보지 않으며 남보다 더 우월하게 만들어내는 투쟁정신, 투쟁기풍이야말로 혁명의 요구이고 위대한 변혁의 비결이며 당이 바라는 창조와 건설의 기준임을 아로새겨주고있다.

이 땅에 빛나는 모든 력사적창조물들은 누구의 선사품이나 남을 쳐다보며 남의 힘을 빌려 이룩한것이 아니다.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제힘을 믿고 제손으로 창조하고 건설한것이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크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그 자력의 길에서 우리는 가질것을 다 가진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에게는 민족적재보가 다 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의 가슴에 새겨주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이고 자부심이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이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에서 나오는 한 노래를 감상하시고 깊은 감명속에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좋소. 우리의 민족음악이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에 넘치는 민족적정서를 음미하시면서 이 혁명가극은 민족의 자랑이고 슬기이고 재부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지난날 우리가 제대로 없고 풍부하지도 못했을 때에는 남을 쳐다보았지만 지금은 있을것도 다 있고 가지고있을것도 다 있는데 왜 남을 쳐다보겠는가. 훌륭한 민족적재보를 가지고있는데 왜 남을 쳐다보겠는가.

우리 민족사에서 지금처럼 있을것도 다 있고 재보적인것을 다 가지고있은 때가 있었는가.

한편의 노래를 두고 시작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재보적인것을 다 가진 조국의 현실과 민족의 당당한 존엄에로 이어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기의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세울줄 모르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없다.》**

우리에게는 민족적재보가 다 있다.

로동당시대의 모든 민족적재보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애국정신의 산물이다. 그것은 자기의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내세우며 더욱 발전시키는 당과 인민, 혁명의 전로정을 애국의 일념으로 걷는 진정한 혁명가들만이 거둘수 있는 창조의 고귀한 열매이다.

한평생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식으로 우리의것을 빛나게 창조하도록 이끄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은 절세의 애국자들이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제일 배격하신것이 무엇이며 제일 귀중하게 여기신것이 무엇이였는가.

1970년대 우리 나라에서 채탄기와 굴진기의 첫 시제품이 나왔을때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시였다. 시험적으로 만든것으로서 아직은 성능이 그닥 좋지 못하였고 외형도 투박하였지만 수령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만든 채탄기와 굴진기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였다.

**《대단하구만! 대단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러시며 대견함을 금치 못하시였다.

새 채탄기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알맞아 그 어떤 불리한 작업조건에서도 잘 돌아갔다. 채탄기가 석탄생산에서 은을 낸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수입채탄기보다 더 신뢰성있으면 그것은 큰 성공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며 새 채탄기들을 더 만들라고 기계공장로동계급을 고무해주시였다.

몇해후 이번에는 우리 식의 쌍원통채탄기와 종합굴진기가 생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설비들도 주의깊이 보아주시고 이것은 기계공업부문에서 또 하나의 대단한 혁신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큰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채탄기를 끌끌내 완성해놓았기때문에 온 나라의 탄부들이 혜택을 입게 되였다고 만시름을 놓으신듯 환히 웃으시였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부 일군들이 수입병에 걸려 다른 나라에서 만든 종합채탄기를 넘겨다본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종합채탄기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종합채탄기보다 못하지 않습니다라고 다시금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에서 사대를 철저히 배격하시고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시며 항상 우리의 힘과 기술을 믿으신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기계를 하나 만들고 성냥 한가치를 만들어도 제손으로 남보다 더 좋게 만들며 바로 그렇게 모든것을 자력으로 해나가는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요구하신 창조방식, 혁명방식이였고 변함없는 생활신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그러하시였다.

유명한 련하기계!

오늘 무인화에로 돌입하는 조선의 새 세기 기계공업의 력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자력으로 최첨단을 돌파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민족적자존심을 뜨겁게 전한다.

고난과 시련속에서 우리가 CNC화를 시작할 때 과연 누구의 뒤받침이 있어서 그처럼 대담하고 크게 비약의 걸음을 내짚었던가. 기어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터전을 닦으시려는 절세위인의 강철의 의지와 불같은 애국헌신으로 하여 이 땅에 최첨단돌파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였고 경제와 문화,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세상에 자랑할만 한 재보를 이룩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오늘 새로운 창조와 전변의 기적을 이룩하고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로 하여 세계에 또다시 세찬 파문이 일고있다.

일약 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도약하고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과시한 세기적사변으로부터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을 철령아래에 펼친 전변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해어간의 기적과 변혁들을 통해서도 세상사람들은 조선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깨달았을것이다.

내 조국의 밤하늘에 황홀경의 절정을 펼치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개발한 축포탄으로부터 아이들이 즐겨먹는 꽈배기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인민이 좋아하는 《철쭉》상표 양말로부터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우리의 운반로케트와 원쑤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위력한 무장장비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것의 하나하나에 깃들어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에서 가슴벅차게 받아안는것이 바로 절세위인의 숭고한 자력의 신념이고 우리의것에 대한 사랑이며 그것을 더욱 빛내여나가시려는 드높은 민족적자존심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우리가 걸어온 혁명의 길이 가르치고있고 생활이 엄숙히 보여주고있다. 자기 힘을 믿으면 세상에 없는것도 만들어낼수 있고 자기 힘을 믿지 못하면 부저가락도 남에게 구걸하게 된다는것을.

제힘을 믿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보아주시며 주신 가르치심은 천만군민의 심장에 더욱 거세찬 애국의 불길을 지펴올리였다.

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혁명하고 창조하는 법을 배운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자기의 힘과 기술로 눈부신 진보와 문명의 새 력사를 펼쳐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넓다란 방, 눈길을 끄는 갖가지 제품…

공업품도 있고 식료품도 있었다. 큰 공장에서 만든것도 있고 자그마한 공장에서 만든것도 있었다. 때는 주체87(1998)년 12월 어느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몸소 어느 한 도에서 생산한 인민소비품들을 보아주시였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전시된 제품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 문득 멈춰서시였다. 장군님의 시선은 여러가지 제품들사이에 놓여있는 학습장에 머물러있었다.

표지도 모양도 수수한 학습장, 첫눈에도 지방원료로 만들었다는것이 알리였다. 하지만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반색을 하시며 그것을 손에 드시였다. 그러시며 도에서 자체로 종이문제를 풀어 학생들에게 학습장과 교과서를 보내주려고 노력한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치하하시였다.

도의 일군들은 과분한 평가에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때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어디 글을 한번 써보자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종이의 질을 그렇게까지 세심히 료해하시리라고 미처 생각지 못한데다가 아직 누구도 그 학습장에 자기가 쓰는 심정으로 직접 글을 써보지 못하였던것이다.

일군들을 쓰다듬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학습장질이 어떤지 눈으로 보아서는 다 알수 없습니다. 실지 글을 써보아야 알수 있습니다.》**

금시 시험장같은 분위기가 떠돌았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필기도구를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한 일군이 원주필을 드리였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원주필로 써서는 종이의 질을 알수 없다고 하시며 만년필을 찾으시였다. 일군은 만년필로 바꾸어드리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손수 학습장의 한 페지를 고르시여 거기에 글을 써보시였다. 그러신 후 종이 앞면과 뒤면을 번갈아 찬찬히 살펴보시였다.

**《좋구만, 종이가 피지 않소.》**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환히 웃으시였다.

**《아주 좋습니다. 이만하면 인민들에게 합격될수 있겠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던 일군들은 그 말씀에 그만 목이 꺽 메였다.

학습장 한권을 놓고도 인민들이 좋아하겠는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처럼 모든것을 인민앞에 선참세워보시는 어버이장군님!

과연 언제면 그 풍모, 그 뜻을 다 따를것인가?…

항상 인민의 눈빛을 새기며 일해왔던가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의 마음은 저으기 무거워졌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가책을 느끼신듯 신중하신 표정으로 우리는 이처럼 인민들에게 무엇을 하나 주어도 똑똑한걸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잉크로 써도 피지 않는 학습장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제품의 질을 인민의 요구에 맞게 보장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이 손에 쥐고있는 원주필을 미소속에 바라보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방금전 원주필을 드리였던 자신들의 처사가 부끄러워 일군들은 얼굴을 붉히였다. 그럴수록 장군님께서 손수 드시였던 만년필이 마음속에 깊이깊이 새겨졌다. …

지금도 방방곡곡 공장, 기업소의 생산현장에서는 일군들이 호주머니에 혹은 수첩짬에 원주필을 끼워가지고 다니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투를 조직지휘할것이다. 학습장도 생산하고 천도 짜고 사랑, 과자며 단물 그리고 갖가지 부엌세간도 만들것이다.

하지만 어디서 무엇을 만들든 인민을 위한 제품생산에서 일군들은 항상 어느것을 쥔 사람이 되여야 하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손수 드시였던 만년필을 늘 마음속에 안고 사는 일군이 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 요구를 기준으로 인민의

## 일군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 자동차기중기

지난날 일군들속에는 다른 나라의 연료를 수입하여야만 강철을 생산할수 있는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의것에 매달리는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아주시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원료와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금속공업을 얼마든지 발전시킬수 있다는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석탄과 쇠돌을 가지고 강철을 생산하는것이 금속공업을 주체화하는것이라고,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콕스란이 없었지만 쇠돌을 녹여 철을 생산하여 썼으며 그전에 의병들도 쇠돌을 녹여 화승대와 무철알을 만들어 가지고 왜놈들과 싸웠다고, 콕스가 없어 강철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락원기계공장(당시) 로동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 평양시를 복구할 때 탑식기중기뿐아니라 자동차기중기도 많이 요구되였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동차우에 기중기를 하나 올려놓고는 많은 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각회의에서 자동차기중기를 다른 나라에서 많은 돈을 주고 사오겠는가 아니면 자체로 만들겠는가 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락원기계공장에 자동차기중기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때 락원기계공장의 로동계급은 공작기계가 얼마 없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동차기중기생산과제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락원의 로동계급은 수입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였다. 때문에 그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자동차기중기를 자기 손으로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었다.

### 국내산 주사약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면서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사상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입제에 대한 환상, 수입병과 관련한 실례를 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일군은 우리 나라에서 만든 페니실린은 부작용이 심하고 아무리 맞아도 병이 잘 낫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맞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 나라에서 만든 페니실린을 다른 나라에서 만든 페니실린병에 넣어가지고 가서 오늘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페니실린을 주사하겠다고 하면서 놓아주니 좋아하였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적하신 그 일군이 자기가 맞고 치료효과를 본 주사약이 외국산이 아니라 국내산이라는것을 알고 수입병을 뚝 떼게 된것은 물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의참가자들은 수입병의 근원이 다름아닌 사대주의사상이라는데 대하여 깨닫게 되였다.

수입병에 걸렸던 일군과 페니실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람이 사대주의사상에 물젖으면 자기의것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것보다 못하게 보이는것이라고, 경제지도일군들이 사대주의를 하게 되면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으며 나중에는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을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기업소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겨간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절약은 숭고한 애국사업

### 현지지도표식비 평양메기공장에 건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현지지도표식비가 평양메기공장에 건립되였다.

평양메기공장에는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조국의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헌신의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먹이시기 위하여 메기공장건설구상을 펼치시고 힘있는 건설력량으로 공장을 일떠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그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주체98(2009)년 9월 선군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면서 현대양어기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우리 식의 메기생산방법을 확립하고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신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천만년 길이 빛내여갈 일념을 안고 평양메기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현지지도표식비건립에 충정의 한마음을 다 바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표식비 준공식이 27일에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깊이 새겨주신 진리

세대가 교체되고 세기가 달라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변색되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높은 계급의식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계급의식을 가지고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느해의 5월 1일이였다.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오실줄 어찌 알았으랴.

군인들이 목청껏 울리는 만세의 환호성이 험준한 산발들에 메아리쳤다.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회관에 들리시여 복도에 전시된 교양판을 보아주실 때였다.

인민의 원쑤가 어떤자들인가를 폭로하는 계급교양판앞에서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불순분자들이 유사시에 자기 당과 제도, 인민을 반대하여 나선다는 교양판의 내용을 보시던 그이께서는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의 의도를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다고, 교양판을 잘 만들었다고 거듭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계급투쟁의 교훈은 정세가 어려울 때 이런자들이 변절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일군들의 생각은 깊어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겨가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받들어나가는 과정에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풍모와 투쟁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군대의 전투력과 위력은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군대의 힘을 당할자는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선군시대에 인민군대가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해나가며 계급의 리익을 지켜가기에 뜻깊은 5.1절날 그이께서는 총잡은 우리 군인들을 찾아오시여 그토록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는것이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부대일군의 팔을 잡아 가까이 불러세우시고 귀속말로 군인들이 명절을 잘 지내도록 하라고 자애넘치는 어조로 당부하시고 부대를 떠나시였다.

계급투쟁의 전초선을 언제나 우리 군인들이 지켜서있다.

그날의 간곡한 당부를 잊지 않고 오늘도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은 우리 군인들은 심장의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 총대의 과녁은 명백하다.

본사기자 김 철 혁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이다.

지금 전력공업부문은 물론 련관부문과 단위들에서 전력증산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으며 전기절약이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절약은 곧 생산이며 애국심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며 모두가 높은 애국심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절약은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쓰며 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는것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사업기풍, 생활기풍이다.

애국심은 증산경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사회주의건설전투장들에서만 발휘되는것이 아니다. 애국은 자기 집뜰안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 한방울의 물, 한W의 전기라도 귀중히 여기고 아껴쓰는데서도 애국의 마음을 엿볼수 있으며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정성껏 심어가꾸고 벽돌 한장, 세멘트 한줌, 석탄 한g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데서도 애국심이 발현되게 된다.

오늘 우리 당은 강성국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절약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모든것이 풍족하고 조건이 좋아도 나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고 되는대로 일하고 살아가면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나 다름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절약은 곧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 자각을 안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강성부흥에로 내달리는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는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절약사업이 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연탄군의 경험은 절약이자 생산이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연탄군에 가면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는 물론 군안의 공공장소들과 협동농장 사무실들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유휴자재수집함들이 놓여있는것을 볼수 있다. 군적으로 수집되는 파지와 파비닐을 비롯한 각종 유휴자재들은 지방산업공장들의 중요한 원료원천으로 되고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갖가지 제품들은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을 주고있다. 이렇게 군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고있는 연탄군의 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크든작든 국가와 사회의 모든 재산을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여기는 애국의 한마음을 간직하고 누구나 절약사업에 떨쳐나설 때 버릴것이란 하나도 없으며 폐물도 보물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절약사업은 과학기술발전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원료와 연료, 자재소비를 극력 줄이면서도 경제적효과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다.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절약하자고 해도 할수 없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에네르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천연자원과 연료가 심히 고갈되여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재생가능한 에네르기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증산절약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최첨단에로 도약하는 우리의 록색에네르기제품생산기지인 광명레드, 태양전지공장의 자랑찬 혁신적성과와 드높은 생산적앙양은 지식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웅대한 설계도가 어떻게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각종 레드등과 태양전지를 생산함으로써 막대한 전력과 석탄을 절약하면서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이 공장의 일본새를 놓고 과학기술의 역할이 절약투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말로써가 아니라 높은 실력과 실천으로 조국을 떠받드는 참된 애국자로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여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자, 이것이 현시기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들고나가야 할 애국의 기치이다.

모든 일터와 초소마다에서 열렬한 애국심을 발휘하여 한W의 전기, 한g의 석탄, 한방울의 물도 극력 아껴쓰며 온 사회에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는 절약기풍이 차넘칠 때 강성국가건설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리 강 철

# 전력증산의 우렁찬 동음으로 조선속도창조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 장하다, 새 기록을 창조해가는 전력생산자들이여!

### 동평양화력발전소 로동계급의 투쟁

전력증산투쟁으로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있는 때에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련일 혁신적인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지난 20일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 돌파!

21일, 22일 전력생산 월초에 비해 1.4배, 1.6배로 계속 장성!

24일 최근년간 일 전력생산에서 최고기록!

가슴높뛰게 하는 혁신의 소식에서 우리는 당의 명령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곳 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당의 전투적호소에 접한 시각 동평양화력발전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은 세차게 높뛰였다.

하루빨리 전력생산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당과 조국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자, 이런 불같은 목소리들이 일터마다에서 힘있게 울려나왔다.

증산전투에 진입한 첫날부터 보이라, 타빈직장현장은 부글부글 끓었다.

보조부문의 여러 종업원들이 열생산직장을 비롯한 주요생산단위로 탄원하였으며 건설직장의 로동계급은 타빈직장현장에 달려나가 미흡한 점을 깐깐히 살펴보고 배수로의 축조작업을 스스로 맡아나섰다.

일군들의 잡도리 또한 비상했다.

당, 행정의 모든 부서일군들이 교대별로 맡아 현장으로 들어갔다. 생산총화도 현장에서 격식과 틀이 따로 없이 화선식으로 진행되였다.

기사장, 부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보이라의 가동과 운전조작정형을 세밀히 관찰해보면서 증유소비기준을 낮출수 있는 방도를 찾아나갔다. 현장에서의 기동성있는 생산조직은 증산의 밑불이 되였다.

당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접수한 당일군들도 모두 말은 교대들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의 가슴에 불을 다는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증산예비를 찾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어느날 타빈직장 4교대장 김용남동무는 보이라의 부하가 올라간데 맞게 자가소비증기를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같은 증기로 종전보다 2 000kW의 순시전력을 더 생산할수 있는 혁신적인 발기였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증산투쟁은 교대별경쟁속에서 더욱 열기를 띠고 벌어졌다.

운영중 1호보이라의 좌측미루전동기보수작업이 진행되자 열생산직장 4교대 조작공 김성남동무는 운전조작을 최대의 긴장성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하여 8시간동안에 10여t의 증유를 절약할수 있게 하였다.

교대가 교대를 돕고 서로서로 위해주는 집단주의기풍이 모든 일터마다에 차넘치였다.

타빈직장 3교대 조작공 안춘호동무는 다음교대로력이 긴장하다는것을 알고 스스로 다음교대몫까지 맡아나섰고 불덩이같은 몸을 가지고도 일터를 떠나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4교대 부교대장을 위해 온밤 현장에서 치료활동을 벌리며 일손을 도와준 진료소의사들도 있었다.

운탄직장에서는 꼬리를 물고 련이어 들어오는 석탄화차들을 제때에 처리하기 위한 전투가 교대가 따로 없이 진행되였다.

이런 불같은 기세로 당이 제시한 전력생산목표점령에로 돌진해나가던 어느날 열생산직장에서는 뜻밖의 정황으로 보이라를 세우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모두의 가슴가슴은 바질바질 타들어가는듯 했다.

송풍기를 다 동원하여 보이라를 식히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다고 생각한 보수공들이 주저없이 보이라안으로 들어갔다. 그 누구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수 없었다.

당시 보이라의 온도는 대단히 높았다. 뾰얗게 서린 수증기로 하여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었지만 이들은 보조를 맞추며 용접준비작업을 재빠르게 해놓았다.

특수용접을 맡은 열생산직장 공정기사 정성국, 보수공 장광덕동무들이 만류하는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며 열기를 내뿜는 보이라안으로 들어가 교대로 용접의 불꽃을 날렸다.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이런 각오를 안고 결사전에 나선 이들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었다.

이것은 비단 보수전투에 참가한 로동계급의 모습만이 아니였다. 발전소의 모든 전력생산자들이 그렇게 살며 일하고있다.

높아가는 전력생산실적은 당의 호소에 뜨거운 심장으로 화답해나선 동평양화력발전소 로동계급의 정신력의 높이이다.

본사기자 리 철 옥

## 평양의 불빛이 보인다

### 2.8직동청년탄광 생산종합지령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합니다.》

여기는 나라의 대규모 석탄생산기지인 2.8직동청년탄광 생산종합지령실이다.

온 나라에 력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던 주체98(2009)년 8월 탄광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새겨져있는 지령실이다.

그날에 남기신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오늘의 화력탄보장전투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는 이곳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의 애국의 숨결은 여기 생산종합지령실에도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생산량자동측정체계에 의하여 반영되는 지령실화면들에서 전반적갱들의 생산실태가 한눈에 안겨온다.

3갱, 8갱, 9갱, 12갱 아니 모든 갱들에서 석탄이 물밀듯이 나온다.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듯 갱들에서 나오는 석탄을 담아싣고 흐르는 벨트콘베아수송선은 불수록 장쾌하다.

앞으로 오후교대작업은 두시간정도 남아있다.

현재의 속도로 갱들에서 질풍처 내달린다면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하고도 100t화차 7차량을 더 화력발전소로 보내줄수 있다고 계획지령장이 긍지에 넘쳐 말한다.

놀라움을 표시하는 우리에게 그는 탄광의 전투기록일지를 펼쳐보여준다.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탄광에서는 이전시기에 비하여 1만 수천t에 달하는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더 보내주었던것이다.

1만 수천t!

이 증산수자는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직동》에서 《평양》까지라는 주제의 사회주의경쟁도표를 만들어 증산경쟁운동을 벌린 탄부들, 한의 석탄이라도 더 평양으로 보내자고 자기들의 깨끗한 량심을 수천척지하막장에 묻으며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사람들이 바로 직동의 탄부들이다.

자랑찬 증산의 이 전투기록에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석수가 쏟아져내리고 예상치 못했던 정황이 수시로 제기되는 지하막장에서 당정책결사관철전을 벌려나가는 직동의 탄부들의 고귀한 정신세계가 그대로 어려있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직동탄전의 자랑찬 전투기록은 단순한 수자가 아니다.

수도 평양의 불빛을 지켜가는 수호자들인 우리 탄부들이 수천척지하막장에서 당중앙을 우러러 올리는 충정의 보고이다.

본사기자 강 명 천

## 더 많은 동발나무를 탄전으로

### 희천갱목생산사업소 상하차작업반에서

여기는 갱목운반전투로 들끓고있는 희천갱목생산사업소 상하차작업반의 토장이다.

각이한 통나무들이 규모있게 쌓여있는 현장에서 지금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더 많은 갱목을 탄광들에 보내주기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선행부분,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매달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수행하고있는 극성, 판대, 명대작업소 등에서 지형조건에 맞게 삭도를 리용하여 끌어내린 통나무들이 련속 토장에 도착한다.

하차작업이 진행되는 곳에 밀둘레가 두아름은 실히 되는 거목들과 엄청나게 긴 통나무들이 잠간사이에 무드기 쌓인다.

혁신자들인 고문학, 김남철동무들이 단단한 물푸레나무장대를 틀어쥐고 걸싸게 든장질을 해댄다. 맞은켠에서도 규격갱목이 구간마다 가쁜하게 들어앉아 마치 연필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은듯 하다.

우릉, 우르릉, 위-잉…

소형굴착기를 련상케 하는 상차기가 구내철길을 따라 부지런히 오가며 쉬임없이 강철팔을 휘두른다. 운전칸에서 상하차작업반 반장 한봉일동무가 조종대를 능숙하게 다루며 갱목무지에 쇠바줄을 드리운다. 어느새 단처럼 묶인 규격갱목들이 보기좋게 들리더니 빙그르르 돌며 토장옆에 들이댄 차판으로 서서히 옮겨진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이미 년간 나무베기과제를 훨씬 넘쳐수행한 성과에 기초하여 순천지구와 개천지구의 탄광들에 더 많은 갱목을 보장하기 위한 운반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습니다. 우리는 탄광, 발전소의 로동계급과 나란히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함께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화력탄증산에 필요한 갱목들을 제때에 무조건 전량 보장하겠습니다.》

토장에서 우리와 만난 사업소 기사장 최영철동무의 신심넘친 말이다.

그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보기에도 흐뭇한 갱목차량들을 뒤에 달고 기관차가 기적소리 드높이 부성역을 출발한다. 림업부문 로동계급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담아싣고 탄전으로, 탄전으로 기운차게 내달린다.

본사기자 정 순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혁명적신념과 량심으로 받들고 말그대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옹호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어떤 심장으로 받아들이는가.

가능성을 론하기에 앞서 무조건 한다는 배짱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앞에는 점령 못할 요새가 없는 법이다.

형봉탄광의 현실이 말해주고있다.

물과의 힘겨운 격전을 치르면서 8월까지 매달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해온 탄광의 구체적조건과 능력으로 볼 때 그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보장하여야 하는 증산목표수행은 아름찬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 결사의 맹세와 실천

### 형봉탄광 일군들과 탄부들

당의 전투적호소를 전달받던 그 시각 일군들과 탄부들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온 나라가 우리 탄부들을 지켜보고있다.

석탄이 팡팡 나와야 나라가 허리를 편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 누구나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 1만의 강재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천리마속도를 창조했던것처럼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맹세는 곧 실천으로 이어졌다. 탄부들의 입갱시간부터가 달라졌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한t의 석탄이라도 더 화력발전소에 보내줄 한마음을 안고 증산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탄부들의 앙양된 기세가 석탄증산실적으로 이어지게 하자면 일군들이 진군대오의 기관차가 되여 내달려야 하였다.

지배인은 대성갱을, 초급당비서는 솔골갱을, 기사장은 중동갱을 맡아 일제히 전투지휘소를 차지하고 능동적인 전투지휘로 막장마다에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목표는 높이 내세운 증산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는것!

증산의 방도는 자체의 채굴조건에 맞게 채취률을 높이는데서 찾았다.

정면으로 돌입하면서 탄을 캐내고 채탄장을 우회하면서 캐내는 방법으로 큰 탄밭에서도, 작은 탄밭에서도 작업굴진을 앞세워 한의 석탄이라도 허실함이 없이 모조리 다 캐내자는것이였다.

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맹렬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이 벌어졌다.

형봉갱 채탄중대, 대성갱 채탄4중대, 중동갱 채탄1중대와 2중대의 탄부들이 혁신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진격하였다.

그뒤를 따라 탄광의 모든 갱들이 앞서거니뒤서거니하면서 증산목표를 돌파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을 벌렸다.

갱들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탄광참모부에서는 석탄운반능력을 높이는데도 힘을 넣어 많은 탄차들을 증산돌격전이 벌어지는 막장들로 보내주었다.

이 과정에 갱들에서는 높이 내세운 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돌파할수 있었다.

9월 4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탄광에서는 증산목표를 112.5%로 넘쳐 수행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석탄생산을 1.8배로 늘인것으로 된다.

하지만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조금도 만족을 모른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더 높은 증산목표를 돌파하기 위하여 맹돌진해나가고있다.

물이 많이 침습해오는 구역들에 뽐프들을 집중배치하고 물을 빼돌리면서 새로운 채탄구역을 형성하는 한편 굴진에 힘을 넣어 예비채탄장을 끊임없이 늘이고있다.

대성갱 하복남고속도굴진소대, 솔골갱 한영철고속도굴진소대의 굴진공들이 앞선 발파방법과 천공방법으로 순환당 진도를 부쩍 높이면서 탄광의 생산전망을 보란듯이 열어나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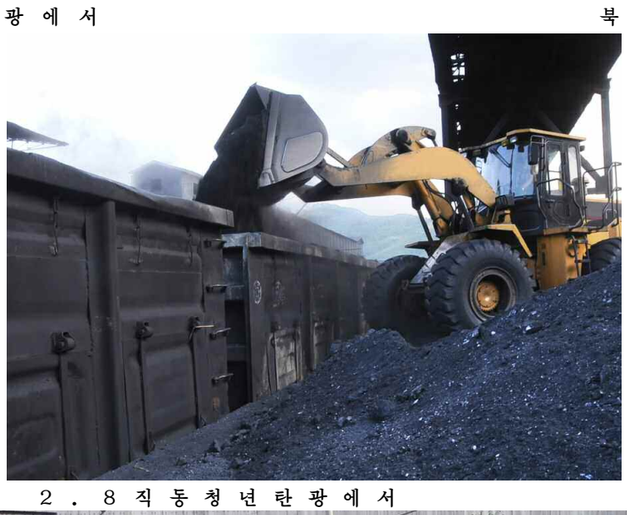
본사기자

## 서부지구 탄전들에서 타오르는 생산적앙양의 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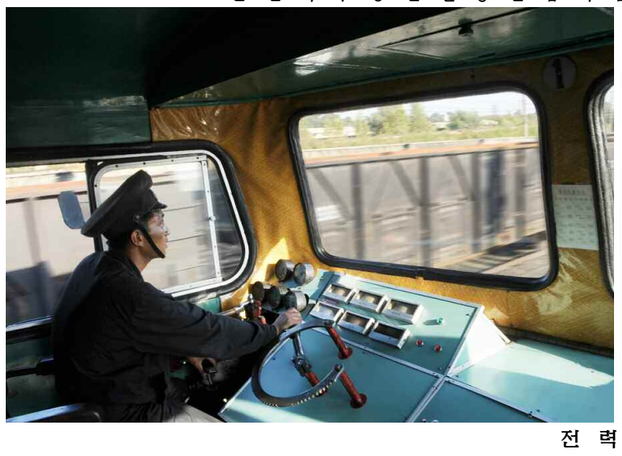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천탄광에서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에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에서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에서



전력증산으로 들끓는 화력발전소들에 석탄을 더 많이, 더 빨리! 본사기자 찍음

# 극악한 특등대결광, 현대판매국역적은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버려야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우리는 이미 박근혜의 불꼴사나운 입뚜껑이야말로 모든 재난을 낳는 창구라고 락인한바 있다.

한것은 그 입만 열리면 동족에 대한 온갖 비방과 중상이 장마철 탁류처럼 쏟아져나오고 미국상전에게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아부와 굴종으로 일관된 요설이 쉬임없이 흘러나오고있기때문이다.

박근혜의 입이야말로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불신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첫번째 화근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박근혜의 이러한 기질은 얼마전 대양건너 미국땅에 게바라간 기회에 생겨먹은 그대로 할 말, 못할 말 가림없이 온 겨레를 격노케 하는 독기어린 망발들을 마구 늘어놓은데서 유감없이 과시되였다.

**이번에 동족을 모해중상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특등대결광으로서의 박근혜의 본색은 《북핵포기》에 대하여 약청을 돌구는것으로부터 백일하에 드러났다.**

박근혜는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 핵시험을 감행한 유일한 범죄국가》이고 우리의 핵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며 우리의 핵활동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대한 《전면부정》이라고 고아댔다.

사실 박근혜만은 입이 열개가 매달려있다 해도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할 초보적인 체면도, 자격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그것은 남조선땅에 미국상전의 핵탄을 제일먼저 끌어들여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발단시킨 주범이 그 애비이고 《유신》독재를 그대로 유전받아 미국의 《확장된 핵억제전략》실현에 치마바람을 일쿠며 상전의 핵타격수단들을 빈번히 끌어들여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그 애비의 그 딸인 박근혜자신이기때문이다.

바로 그러한 박근혜가 집안에 옹크리고 앉아서는 가뜩이나 식민지 고용군에 불과한 괴뢰군의 보잘것없는 군권까지 영원히 미국상전에게 내맡길 작당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겨레를 지키고 평화를 담보하는 동족의 핵보검까지 없애보려고 분별없이 돌아치고있다.

박근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 핵억제력의 사명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을 종식시키고 이 땅을 집어삼키려는 날강도 미제의 존재를 송두리채 불태워버리며 미국에 추종하여 민족의 수치와 비극만을 초래하는 박근혜와 같은 현대판사대매국노들을 영원히 매장해버리는데 있다.

이 성스러운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 핵억제력은 이미 초정밀화, 소형화단계에 진입한 상태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놈들의 본거지와 태평양지역의 크고 작은 미제침략군 군사기지들을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와 수역에서 타격할수 있는 항시적인 림전태세를 갖추고있다.

따라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억세게 틀어쥔 이 핵보검을 어째보려고 돌아치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처사는 없을것이다.

핵보검을 더욱 튼튼히 틀어쥘 때 박근혜가 주제넘게 떠드는 국제사회의 그 무슨 《지원》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우리 삶을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보란듯이 만들수 있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이고 신념이다.

**동족을 모해중상하고 대결고취에 제정신이 없는 특등대결광으로서의 박근혜의 본색은 유엔무대에서 우리에 대한 병적거부감이 끓뒤까지 들어찬 나머지 우리의 《인권문제》를 악질적으로 걸고든 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미국이 주동이 되여 온갖 불순적대분자들이 꿰치는 《북인권문제》타령은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이며 인간의 진정한 삶의 권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된다.

박근혜는 마치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갖고있는것이 《북의 인권문제》인듯이 악설을 늘어놓으며 유엔인권리사회가 채택한 그 무슨 《권고사항》을 리행해야 한다고 주제넘게 떠들어댔다.

나중에는 남조선에 《북인권사무소》까지 설치하게 될것이라는 도발적인 악담도 서슴지 않았다.

원래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거수기로 전락된 유엔의 그 어떤 《결의》따위를 한번도 인정해본적이 없다.

더우기 유엔인권조사위원회라는 허깨비같은 존재는 물론 그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무엇인지 알려고조차 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사유활동을 가진 정치인들이라면 모여든 까마귀떼가 까욱소리를 소란스럽게 내지른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것이다.

만약 유엔이 늦게나마 본래의 자기 사명에 충실하려면 그리고 인권개선에 그리도 관심이 있다면 반인민적악정과 현대판《유신》파쑈독재로 하여 인간생지옥, 인권유린의 란무장으로 된 남조선사회나 그와 꼭같은 미국사회부터 개변하는데 열중해야 할것이다.

수백명에 달하는 애어린 학생들을 검푸른 바다속에 무참히 수장시킨 《세월》호침몰사고며 약육강식이 체질화된 괴뢰군대에서 발생한것과 같은 각종 류형의 몸서리치는 인권유린행위들로 하여 죽기보다 못한것이 남조선과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다.

박근혜는 《북인권사무소》가 아닌 《남인권사무소》나 설치하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람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남조선땅을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매듭하는 인권불모지가 되지 않게 해야 할것이다.

하긴 동족대결을 유전으로 타고난데다가 사대와 굴종으로 잔뼈를 굳히고 흰머리칼을 얹은 박근혜로서는 무덤속에 들어가도 12년제무료교육에 의한 배움의 권리가 무엇인지, 무상치료에 의한 병고칠 권리가 무엇인지, 인간이 향유하는 참된 권리가 무엇인지 초보적인 표상조차 가지지 못할것이다.

박근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인권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중심의 주체철학에 기초한 인간의 참된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이 참된 인권을 헐뜯는 박근혜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정신적 불구자임을 스스로 자인하여야 할것이다.

**박근혜는 이번 유엔무대에서 동족대결에 열이 뜬 나머지 사람명단에서 제명된지 오랜 인간쓰레기들을 《탈북민》이라고 비호두둔하는 놀음도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를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이 그들을 그 무슨 《탈북자》, 《탈북민》이라고 명명하면서 사람취급을 해주고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람가죽을 뒤집어쓴 오물로, 쓰레기로 단정해버린지 오래다.

썩은 냄새를 풍기는 오물은 오물장에 가고 그 어디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가기마련이다.

사기와 협잡, 인일과 부화, 살인과 강도행위 등 인간세상에서 살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것으로 하여 고향사람들은 물론 친혈육들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은 인간추물들, 《탈북자》들이 밀려가고있는 곳이 다름아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온통 썩어가는 남조선땅이다.

박근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사람으로 살기를 그만둔지 오랜 인간쓰레기들인 《탈북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을 끼고 그 무엇을 성취해보려고 어리석게 돌아칠수록 자신이 악취만 풍기는 추물로 되여 온 겨레와 민족의 지탄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박근혜의 이번 《탈북민》공개떠벌임으로 하여 남조선괴뢰들은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벌려놓고있는 반공화국《풍선작전》이 《당국의 책임》과 무관하고 《군부의 관여》가 없다고 더는 우겨대지 못하게 되였다.

입건사도 바로 못하는 치마두른 안방주인밑에서 진땀을 뿌려대며 안달복달하는 괴뢰들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기도 하다.

**이번에 박근혜는 베를린장벽해체 25년을 거론하는것으로 골수에 배여있는 《흡수통일》 야망까지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장벽해체》가 그리도 소원이라면 제 애비와 그 추종분자들이 근 40년전 이 나라 강토를 둘로 동강내며 쌓아놓은 콩크리트장벽부터 먼저 허물어버리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동족대결과 사대매국으로 일관된 박근혜의 이번 유엔행각과 떠벌임을 놓고 남조선정계에서조차 《미국에 무작정 매달리는 부끄러운 행각》, 《미일상전과의 관계만을 고려한 눈치보기 연설》, 《남북관계를 더 꽁꽁 얼어붙게 하는 미누스행각》, 《얼어붙은 남북대화와 접촉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이라고 혹평하고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야말로 우리 민족의 특등재앙거리이다.

우리 민족사의 갈피갈피를 어지럽힌 매국노, 반역자들이 적지 않았지만 박근혜와 같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앞에 씻을수 없는 만고대죄를 저지른 악한과 독종은 있어본적이 없다.

이번에 박근혜는 제스스로 자신이 현대판사대매국노이며 역적중에 가장 악질적인 만고역적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북남관계가 개선되자고 해도, 민족의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자고 해도 박근혜와 같은 역적무리들을 단호히 청산해버려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얻은 결론이다.

박근혜와 같은 매국역적들이 무덤속에 처박히는 날이 곧 민족의 전도가 열리는 력사적인 순간으로 될것이다.

박근혜의 비참한 말로는 이미 주어졌다.

주체103(2014)년 9월 27일
평 양

---

### 우리 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성원들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그리는 밤》 모임 진행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고있는 우리 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성원들이 27일 인천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그리는 밤》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는 체육상인 김영훈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저 멀리 평양의 하늘을 우러르는 모임참가자들의 가슴은 이밤도 조국의 강성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과 리상을 꽃피워주시기 위해 위대한 헌신의 길, 사랑의 길을 이어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뜨겁게 젖어있었다.

모임에서는 먼저 김영훈위원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슬하를 떠나 남녘에서 보낸 길지 않은 나날에도 대표단, 선수단 전체 성원들의 마음은 자나깨나 뵙고싶은 원수님께로 끝없이 달리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주시려 전선시찰의 길을 걷고계실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우리 대표단, 선수단 성원들의 가슴가슴에 뜨겁게 넘쳐흐르고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뗄래야 뗄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마음을 담은 노래 《뜨거운 정》이 울려퍼지자 모임장소는 끝없는 흥분으로 설레이였다.

이번 경기대회 남자력기경기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새 기록을 창조하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김은국선수가 읊은 자작시 《그리운 김정은동지》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희망과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선군조선의 체육인으로 자라난데 대하여 언급한 김혁봉선수의 선창에 따라 모임참가자들이 충정의 한마음담아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 《그이없인 못살아》가 남녘의 하늘가로 끝없이 울려퍼지였다.

김일 레스링협회 서기장은 우리 원수님이라는 그 부름은 사랑으로 정답고 믿음으로 뜨거운 위대한 어버이라는 말과 같이 우리의 심장에 깊이 새겨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들이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력과 배짱으로 싸워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병식 선수단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은 품결에도 뵙고싶은 그이의 품으로 한시바삐 달려가 안기고싶은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의 분출이다.

우리모두 《불타는 소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이번 경기대회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올리자.

신용철 선수단 부단장은 조국과 인민이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경기장마다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릴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 우리 나라의 정학진, 김지성선수들

# 금메달 획득

##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정학진, 김지성선수들이 27일 남자자유형레스링 57kg급경기와 남자개인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기에서 각각 1위를 하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전문가, 애호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의 경기들에서 정학진, 김지성선수들은 우리 당의 사상전, 투지전, 속도전, 기술전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평시에 련마해온 기술과 육체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남자자유형레스링 57kg급경기에 출전한 정학진선수는 예선경기에서 몽골선수를 11:8, 준결승경기에서 일본선수를 4:2로 이기고 신심드높이 결승의 마당에 나섰다.

그는 경기시작부터 접촉순간 빠른 이동에 의한 정면다리잡기공격 등으로 까자흐스딴선수를 제압하였다.

상대선수는 어떻게 하나 잃은 점수를 회복하려 하였지만 경기는 결국 정학진선수가 8:6으로 앞선 가운데 끝났다.

남자개인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기에서 김지성선수는 고도의 집중성과 정확한 조준에 의한 대담한 격발 등 높은 기술로 1회전에서 96점, 2회전에서 98점, 3회전과 4회전에서 각각 95점으로 종합 384점을 획득하여 단연 1위를 차지하였다.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정학진, 김지성선수들에게 금메달이 수여되였다.

한편 이날 남자단체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정 학 진 선 수

김 지 성 선 수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몽골 국가대회의대표단과

# 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표단과 몽골 국가대회의대표단의 회담이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안동춘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성원들이, 상대측에서 르. 곤치그도르쥐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국가대회의대표단 성원들과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의회들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

### 최고인민회의에서 몽골 국가대회의대표단을 위하여

# 연회 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몽골 국가대회의대표단을 위하여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르. 곤치그도르쥐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국가대회의대표단 성원들과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안동춘부의장, 태형철 조선몽골친선의원단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쥐 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

### 몽골 국가대회의대표단 도착

르. 곤치그도르쥐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국가대회의대표단이 27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태형철 조선몽골친선의원단 위원장, 김성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주조 몽골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맞이하였다.

---

### 오스트리아국제문제연구쎈터대표단 도착

프란씨스 마우트너-마르크호 프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오스트리아국제문제연구쎈터대표단이 2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 윤이상음악연구소창립 30돐

# 기념보고회 진행

윤이상음악연구소창립 30돐 기념보고회가 26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박춘남문화상, 관계부문 일군들, 윤이상음악연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중앙예술단체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홍경호 윤이상음악연구소 소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윤이상음악연구소 창립 3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연구소가 나라의 음악예술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독자적인 음악예술단체로 발전하게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창립 3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이 시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윤이상선생과 그 유가족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연구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바치신 불면불휴의 로고에 대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윤이상선생을 여러차례 만나시여 해외에서 민족적량심을 간직하고 의로운 음악창작활동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지난 30년간 연구소안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음악과학연구와 편집출판, 음악창작과 예술공연활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보고자는 연구소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음악예술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적극 기여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반영한 음악작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 공연함으로써 전체 군대와 인민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연구사, 기자, 편집원들은 음악과학연구사업을 폭넓고 전망성있게 벌려 가치있는 연구론문들을 더 많이 집필, 출판하며 출판물의 내용과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하여 우리 당의 조국통일사상을 널리 해설선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고 명작폭포로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 윤이상음악연구소창립 30돐

# 기념음악회 개막

윤이상음악연구소창립 30돐 기념음악회가 개막되였다.

개막공연이 27일 윤이상음악당에서 있었다.

박춘남문화상, 홍경호 윤이상음악연구소 소장, 관계부문 일군들, 중앙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부문 교원, 학생들, 시내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또한 남조선 윤이상평화재단 관계자들과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보았다.

공연에 앞서 한철 문화성 부상이 발언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령도, 고매한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윤이상음악연구소창립 30돐 기념음악회를 성대히 진행하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음악회가 온 겨레에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데 적극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관현악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윤이상작곡 대관현악을 위한 무용환상곡 《무악》 등의 곡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섬세한 연주기교로 작품들의 내용을 잘 형상함으로써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음악회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

# 우리 민족의 귀중한 력사문화유산—광개토왕릉비

올해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력사문화유산의 하나인 광개토왕릉비가 건립된지 1 600년이 되는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유적과 유물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 있는 민족의 재보이며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발전된 문화를 전해주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광개토왕은 우리 나라 력사에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자랑높았던 고구려의 24대왕이였다.

광개토왕릉비는 광개토왕(374-412, 재위기간 391-412)의 공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장수왕이 세운 공적비이다. 지금으로부터 1 600년전인 414년 9월 29일에 건립되였다.

광개토왕릉비는 현재 중국 길림성 집안의 우리 나라 압록강 만포대안에 옛 모습그대로 그 자리에 서있다.

광개토왕의 이름은 고담덕이며 시호(죽은 다음 주는 호칭)는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 편안하게 한 황제라는 뜻을 가진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이다. 시호가 보여주는것처럼 고구려의 땅을 크게 넓힌 임금으로서 고구려의 령토확장과 국력배양에서 큰 공로를 세운 인물이다.

광개토왕릉비의 비몸은 응회암으로 만들어졌다. 높이 6.34m, 너비 1.43~1.9m의 크기를 가진 4각형기둥모양으로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력사유적이다. 대돌은 화강석이다.

비석에는 1 800자에 가까운 글자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음각한 깊이는 5㎜가량이다.

비석은 전체적으로 웅건한감을 준다. 글자 역시 독특하고 웅건한 예서글씨의 명필로서 호방한 고구려사람들의 기상을 보여주고있다.

광개토왕릉비는 아시아의 강대국이였던 고구려의 기상을 그대로 떨치듯 매우 크고 웅장할 뿐아니라 비문의 내용 또한 특이하고도 풍부한 사료적가치를 가지고있다.

또한 간결하고도 웅장한 문장들로 하여 오래전부터 내외학계의 이목을 끌어왔다.

비문은 3개의 큰 문단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제1단은 서문에 해당된다. 《옛날에 시조 추모왕이 고구려 국가를 창건할 때에 그 연원은 북부여에서 나왔다. 추모왕은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였다. … 나서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었다. …》고 시작된 비문의 서문은 고구려국가의 탄생과 그 신성함을 높이 구가하였다. 이어 력대 왕들의 계승관계를 서술한데 이어 광개토왕의 즉위와 죽음에 대하여 서술하고 그후 산릉(왕릉을 달리 이르는 말)을 쌓고 릉비를 세우게 된 유래를 밝히였다.

제2단에서는 영락5년(395년)부터 영락20년(410년)에 이르는 기간의 광개토왕의 무훈을 편년적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 제3단은 수묘인(묘지기)의 수를 출신지별로 렬거하였다. 그러면서 광개토왕의 훈시를 인용함으로써 왕이 수묘인제도를 확립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광개토왕릉비의 비문내용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것은 고구려임금을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인 《천제의 아들》, 《황천의 아들》 즉 황제로 불렀다는 것과 고구려에서는 임금을 여느 국왕과 다른 황제라는 뜻을 특별히 강조하여 《태왕》으로 불렀다는것을 밝히고있는것이다. 주몽이 죽자 하늘에서 황제를 상징하는 황룡을 내보내여 마중오게 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비문에는 황제만이 지을수 있다는 년호도 밝혀져있다. 영락이라는 년호가 바로 그것이다. 광개토왕은 즉위하자마자 영락이라는 년호를 사용하여 일명 영락태왕이라고 불리웠다.

비문에서 또한 주목되는것은 고구려가 백제와 가야 및 《왜》정벌내용을 서술한 391년(신묘년)기사이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크게 휩쓴 고구려-신라를 일방으로 하고 백제-가야-《왜》를 타방으로 한 큰 전쟁에서 고구려는 조선반도의 패권을 틀어쥐고 강력한 군사행동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남쪽으로 령토를 크게 넓혔으며 백제-가야-《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지난날 일제군부는 광개토왕릉비의 이 신묘년기사를 가지고 일본 《야마또정권》의 조선식민지지배론이라는 《임나일본부》설을 고창하였다.

1882년경 일본륙군참모본부는 앞으로 다가오는 청일전쟁을 예견하여 수십명의 간첩을 중국관내와 압록강일대에 파견하였다. 그것은 청일전쟁을 도발할수 있는 《구실》과 《력사적근거》를 찾기 위한 책동의 한 고리였다.

그러한 가운데 한 포병중위가 압록강대안 집안일대에 은밀히 잠입해있다가 릉비의 탁본 한벌을 얻어서 일본에 가져갔다. 간첩이 가져간 릉비의 탁본(사실은 탁본을 모방하여 만든 쌍구본)은 륙군참모본부 모략가들의 대환영을 받았다.

놈들은 조선과 만주침략을 위한 불순한 정치적목적 다시말하여 《야마또정권》이 조선을 식민지지배하였다는 얼토당토않은 반동적 《임나일본부》설을 《근거》 짓는 비뚤어진 조일관계사를 조작하는데 릉비의 비문을 악용하였다. 군사작전을 전문하는 륙군참모본부의 지하밀실에 모인 군인들과 륙군대학의 어용학자들은 릉비의 쌍구본을 이리저리 돌려맞추어 하나의 공식화된 문장을 조작하였다. 그것이 신묘년기사였다. 《백잔(제)과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조공해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391년)에 왔기때문에 (바다를) 건너 백잔을 격파하였고 동쪽으로 신라를 (회유하여) 신민으로 삼았다.》고 읽어야 할 비문내용의 주어를 고구려로부터 《왜》로 바꾸어 《백잔(제)과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조공해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잔을 격파하고 동쪽으로 신라를 (왜의) 신민으로 삼아버렸다.》로 만들어놓은것이다.

일본이 신묘년기사의 주어를 《왜》로 읽으려고 하는것은 순전히 조선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비석에서 《임나일본부》설을 《립증》하는 《결정적근거》를 찾을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타산에서부터 출발하였기때문이다.

심지어 일본군부는 광개토왕릉비자체를 일본에 실어가려고 하다가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그러한 강도행위를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야마또 《왜》의 《조선에로의 군사적진출》이라는 판에 박힌 사이비학설은 백수십년동안 일본학계와 언론계를 어지럽히였으며 또 각급 력사교과서들에 광개토왕릉비의 비석사진과 함께 조작된 신묘년기사가 게재됨으로써 《임나일본부》설을 립증하는 《특등자료》로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그릇되게 심어져왔다. 따라서 조선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세계적인 비석이 일본사람들에게는 《호태왕비》라고 불리우면서 《임나일본부》설과 함께 《1억국민의 상식적존재》로 정착되게 되였다.

오늘날에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 실례로 이꾸호샤에서 2012년에 발행한 새로운 중학교 력사교과서 《일본의 력사》(30페지)와 지유샤에서 만든 《새로운 력사교과서》(7페지, 46페지)에는 광개토왕릉비의 사진과 조작된 신묘년기사가 뻐젓이 게재되여 《임나일본부》설이 고취되고있다.

그러나 조선민족의 력사에서 영걸로 일러온 고구려 광개토왕의 기적비는 있지도 않았던 《야마또정권》의 군사적진출을 증명하는 유적이 아니라 고구려의 강대성과 고구려사람들의 호방한 정신세계, 고구려의 령역확장과정 및 당시의 고구려-백제관계, 고구려-신라관계, 고구려-가야관계, 고구려-《왜》관계 그리고 고구려의 건국년대와 수묘인제도를 통해 본 고구려신분관계 등을 보여주는 둘도 없이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또한 광개토왕릉비는 우리 선조들의 금석문유산중에서 가장 오랜것의 하나로서 비문에 담겨진 귀중한 력사적자료, 웅건한 모습과 호탕하고 활달한 글씨와 문장으로 하여 우리 나라는 물론 여러 나라 인민들이 귀중히 여기는 조선민족의 훌륭한 문화유산의 하나로 된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

# 불타는 충정의 마음 시에 담아

## 각지에서 보내여온 글작품들을 보고

모든 꿈과 리상이 아름다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벅찬 시대에 살며 참된 삶을 꽃피워갈수록 위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갈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한마음은 커만가고있다.

그 고결한 충정은 전국각지의 독자들이 본사편집국으로 보내여온 글작품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위대한 인민을 낳습니다.》**

회창군에 살고있는 김지석로인은 날이 갈수록 커만 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해갈 불타는 일념을 시 《내 한생 따르는 품》의 구절구절마다에 담아 보내여왔다.

…

어머니당을 따르는 마음
저 백두의 소백수 푸른 물처럼
티없이 맑으리
당앞에 다진 신념의 맹세
정일봉의 장엄한 그 모습처럼
언제나 변함없으리

흐르는 세월속에 나이가 들수록
당의 믿음과 사랑
더욱 가슴뜨겁게 짓어들거니
불타는 애국의 열정안고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따라
흐르는 세월을 주름잡으리

삶의 순간순간을
더 값있게 살리
더 빛나게 살리

경애하는 원수님과 우리 당만을 따르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은혜로운 삶의 품을 위해 한몸 다 바쳐갈 굳은 맹세는 부전군에 사는 최현국동무의 시작품에도 담겨져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피로운 일이 생겨도 언제나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우리모두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아 안아주는 위대한 조선로동당,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진정 그 품이 있어 모두의 행복도,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있기에 우리 인민은 한목소리로 당의 품은 어머니품이라고,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산다고 목청껏 노래부르며 애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될것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 조국을 먼저 아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고 지혜와 힘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한 강계시의 선우성동무의 글작품도 격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은산군에 사는 리경남, 원산시의 유룡학, 금야군의 리영남, 사리원시의 허광철동무들도 자기들의 글작품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맹세로 충만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그대로 펼쳐보이였다.

날로 번영하는 선군조국의 휘황한 앞날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정의 마음, 애국의 열정은 위대한 시대의 메아리가 되여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방직공장에서-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김정숙평양 주령진 갑들이 공장의 풍치를 돌구어주며

# 아름다운 조선치마저고리의 우수성(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유산으로 내려오는 민족의 우수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우수성들을 창조해나갈 때 민족의 우수성은 더욱 개화발전하게 되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데서 그것이 노는 역할이 커지게 된다.》**

아름다운 조선치마저고리의 우수성은 오늘 우리 인민의 옷차림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일부 나라의 민족옷은 지나온 사회력사적특징과 민족생활풍습이 짙게 반영된것으로 하여 현대일상옷차림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녀성들이 즐겨입는 조선치마저고리는 일상옷차림에서 전통적인것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현대옷차림의 요구에 맞게 색과 재질을 폭넓고 다양하게 리용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일상옷차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우선 개성미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일상옷차림의 요구를 뚜렷하게 반영할수 있다.

개성미는 개별적사람의 몸매에 맞게 옷을 해입었을 때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치마저고리는 옷의 기본형태를 파피시키지 않으면서 형태의 부분요소들과 옷의 색갈, 재질을 리용하여 서로 다른 몸매에 맞게 해입을수 있는 유리한 점을 가지고있다.

조선치마저고리를 옷의 륜곽적인 형태구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동정, 깃, 고름, 소매 등 부분요소들의 크기를 몸매조건에 알맞게 정하여 만들어입는다면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살려나갈수 있다. 소매처리만 보아도 배래기선을 풍만하게 하는것보다 곡선을 완만하게, 여유있게 처리하면 활동에 편리한 차림새로 될수 있다. 계절과 류행에 맞게 처녀들이 좋아하는 산뜻하고 명랑한 색조나 중년녀인들에게 어울리는 밝고 현숙한 색과 같이 나이와 기호에 따라 색갈도 다채롭게 할수 있다. 조선치마저고리는 지나치게 화려한 색을 내놓고는 여러가지 밝은 색으로 어울리게 해입을수 있는데 여기에 바탕무늬가 있는것이면 더욱 다양한 효과를 얻을수 있다. 즉 무늬가 고전적이면 전통적인 맛을 나타낼수 있으며 꽃무늬형식이면 무늬색갈에 따라 화려하거나 부드러운 맛 등 여러가지 품위를 나타낼수 있다. 이밖에 색배합에서는 색동이나 회장과 같은 전통적인 색조화수법을 현대맛이 나게 활용하면 보다 신선한 맛을 나타낼수 있다.

현대치마저고리의 재질리용에서 비단, 갑사, 항라를 비롯한 전통적인 직물로부터 사직물, 비로도, 데트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넓게 쓸수 있는것이 조선옷이 가지고있는 또 하나의 우수성이다.

옷차림을 하는데서 일률적으로 치수를 한정시키는것보다 몸매조건에 맞게 해입도록 하여야 한다.

실례로 목이 밭은 사람은 깃선을 더 깊이 파줄수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은 치마를 다소 길게 해입을수 있다. 그리고 몸매가 고운 젊은 녀성들은 약간 짧게 해입어 발랄한 맛을 살려낼수 있다. 치마형식도 나이와 몸매조건, 기호에 따라 주름을 작게 또는 많이 주거나 주름치마, 통치마, 꼬리치마와 같이 그 종류도 다양하게 갖추어입을수 있다.

현대조선옷은 이처럼 우리 민족의 생활상요구와 몸매, 기호에 따라 조화롭게 해입을수 있는것으로 하여 앞으로도 일상옷으로 우리 생활에 더 깊이 자리잡게 될것이며 그 우수성이 더욱 풍부해질것이다.

평양미술대학 공훈예술가
교수 박사 리유미
(끝)

# 사회주의문명을 더 활짝 꽃피울 드높은 열의

## ‖ 가구제품, 일용품도안전시회장을 돌아보고 ‖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산업미술창작부문과 생산단위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보여주는 가구제품, 일용품도안전시회가 9월초부터 사람들의 큰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전시회가 진행되고있는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가구설계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가구설계를 결정적으로 발전시켜 가구를 다양하게 만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산업미술창작단위들과 교육부문의 창작가, 교원, 연구사, 학생들 그리고 가구제작, 일용품생산단위의 도안가, 설계가, 로동자들이 내놓은 특색있고 쓸모있는 180여점의 가구도안과 200여점의 일용품도안, 430여점의 실현제품들이 출품되였다.

전시회에서 주목되는것은 다기능화된 가구, 조립식가구, 압착판으로 된 가구 등 세계적추세에 맞으면서도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을 반영한 특색있는 도안들과 제품들이 많이 출품된것이다.

우리는 강사 정성복동무의 해설을 들으며 1층에 전시되여있는 가구도안들을 돌아보았다.

형형색색의 생활가구제품도 눈길을 끌었다. 정말 보기만 해도 흐뭇한 우리의 가구제품들이였다. 짙은 말할것도 없고 색갈과 형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의 기호와 현대적미감에 맞게 제작된 가구들, 우리의것이 제일이라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넘치게 하옳겼다.

침대, 책장, 식탁, 신발장…

우아한 색갈과 정갈하게 다듬어진 가구제품들, 그것을 바라보느라니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온 갖 사랑을 다 돌려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전시된 가구제품들을 사람들에게 판매도 해주고 또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 주문봉사도 해준다는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2층으로 참관을 이어갔다.

전시회장의 2층에는 여러 가구도안, 가구제품들과 함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도하여주신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 양로원용집기류형태도안들과 화장품도안, 가방형태도안, 머리빈침도안 등 각종 일용품도안들과 제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돌아볼수록 위성과학자거리의 살림집들에 갖추어지게 되는 가구제품들입니다.》

상업의 발생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해온 상표는 오늘날에 와서는 제품의 내용과 특성, 신용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상품의 미적가치와 편리성, 식별력, 광고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였으며 상업봉사와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였다.

## 상표에 대하여

상표에는 그 상품의 이름과 생산기업소, 생산날자 등을 표시하여 수요자들이 상품에 대한 리해를 정확히 가지게 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며 사람들에게 사고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고 하여도 상표가 구매자들의 미감에 맞고 해당 상품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독특하게 되였다면 그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 구매력을 높여주게 되지만 반면에 상표가 구매자들의 미감에 맞지 않고 상품의 특성을 특색있게 살리지 못했다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구매력을 잃게 된다.

상표는 인간의 정신적재부로서 지적소유권의 대상이다.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상표는 과학기술적발견이나 발명과 함께 산업분야에 이바지하는 정신적재부로 되며 그에 대한 소유권은 지적소유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오늘날 상표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되고있으며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있다.

박사 부교수 박철룡

# 스피룰리나와 그 리용

자연계에는 단백질함량이 70%를 넘는 신기한 생물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스피룰리나도 있다. 생김새가 라선으로 되여있다고 하여 스피룰리나라고 부른다.

세계적으로 스피룰리나의 생물학적특성과 영양학적가치가 밝혀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스피룰리나를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 리용하기 위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알카리성을 띤 더운물에서만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있는 스피룰리나는 길이가 120~150㎛, 라선수가 5~12개로 되여있다.

스피룰리나의 세포는 매우 원시적인 구조를 이루고있다.

스피룰리나에 있는 단백질은 그 함량이 높을뿐아니라 질이 또한 대단히 좋다.

특히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다.

또한 불포화지방산, 각종 비타민, 여러가지 광물질 그리고 수십종의 생리활성물질이 농축된 형식으로 들어있다.

그러므로 스피룰리나를 완전가복합천연영양식품이라고도 한다.

많이 먹어도 몸에 축적될수 있는 해로운 성분이 없을뿐아니라 오래동안 먹으면 편식으로 인하여 나타나군 하는 이상체질적증상들과 각종 성인병이 서서히 개선된다.

스피룰리나는 사람들의 왕성한 정력과 건장한 체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증, 고혈압, 심장혈관질병, 암, 간염, 위염, 위 및 십이지장궤양, 취장염, 골송소증, 관절염 등 여러가지 병의 예방과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데서 매우 효률적인 작용을 한다.

본사기자

## 독자의 천지

### 진정한 방조자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 인민대학습당에서 일하고있는 조남순동무가 우리들의 연구사업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알아보니 얼마전 인민대학습당에 갔던 한 연구사로부터 보아야 할 자료들은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것이였습니다.

조남순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화전서》를 집필하기 위한 전투가 진행될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던 나날에도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연구사업을 적극 떠밀어주고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수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조남순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라고 하시였는데 가만히 있을수 있는가고 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은 자기가 가져다주겠으니 연구사업만 잘해달라고 웃으며 말하군 하였습니다. 정말 그는 우리 연구집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한 성원입니다.

조남순동무와 같은 진정한 방조자들이 있어 우리 과학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를 이룩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고 있는것입니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연구사 최경희

# 다음주에 진행될 공화국선수권대회 종목별 1급경기들

다음주에 공화국선수권대회 여러 종목의 1급경기들이 진행된다.

10월 1일부터 롱구, 자전거남, 녀경기가 기관차체육단과 광복거리에서 각각 벌어지게 된다.

또한 요트 남, 녀경기가 미림갑문 상류와 원산에서, 물스키 남, 녀경기는 미림갑문 상류에서, 락하산 남, 녀경기는 평양에서 각각 진행된다.

정구 남, 녀경기가 2일부터 양각도에서, 륙상 남, 녀경기가 4일부터 김일성경기장과 서산축구경기장, 양각도축구경기장에서 각각 벌어지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 몽골사회민주녀성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ㅉ. 초그졸마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사회민주녀성동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이어 그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만경대일가분들의 애국적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혁명의 걸출한 수령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을 원상그대로 보존하는것은 그이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계승완성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이처럼 소박하고 겸허한 가정에서 위대한분이 탄생하시였다는것이 놀랍기만 하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바로 이런 바탕에서 혁명의 큰 뜻을 품고 성장하셨기에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실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가분들 모두가 열렬한 애국자들이시고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투사들이시라는데서 깊은 감동을 금할수 없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몽골과 조선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관계를 마련해주시였다.

이 력사적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승되여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

손님들은 또한 대성산혁명렬사릉,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평양산원 유전종양연구소, 경상유치원 등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 제10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떠나갔다

제10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였던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27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 박근혜의 망발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

## 대결에 미친 정치매춘부의 추태

속담에 굽은 지팽이는 그림자도 굽어 비친다는 말이 있다. 이번에 피뢰집권자가 유엔무대에서 놀아댄 꼬락서니가 그것을 보여준다.

박근혜는 유엔총회에서 그 무슨 《기조연설》이라는것을 하면서 외세의 턱밑에 붙어사는 더러운 요물단지, 동족대결에 명줄을 건 반역아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그의 장광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동족대결을 교취하며 반공화국공조를 구걸하는것으로 일관되였다.

박근혜는 《핵포기》니, 《인권》이니 하면서 여론을 어지럽혔는가 하면 범죄적인 체제통일야망도 감추지 않았다. 현 피뢰집권자에게 제집안에서보다 밖에 나가 동족대결에 더욱 광기를 부리는 악습이 있다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엔무대에 직접 나서서 극단적인 반공화국대결망언을 서슴없이 내뱉은데 대해 우리는 특별히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박근혜가 우리의 핵억제력을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매도하며 그 무슨 《핵포기결단》이니, 《경제지원》이니 뭐니 하는 넉두리를 늘어놓은것부터 놓고보자.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조선반도의 핵문제발생의 근원은 미국과 그에 추종한 남조선피뢰들의 북침핵전쟁책동에 있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핵무기로 우리를 항시적으로 위협하면서 핵전쟁도발책동에 광란적으로 매여달리지 않았다면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애당초 생겨나지도 않았을것이다.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도발자들에게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맞서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만약 우리에게 강위력한 핵억제력이 없었다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생각이나 할수 있겠는가.

이 엄연한 현실을 피뢰집권자가 굳이 외면하면서 마치 우리의 핵이 그 무슨 《위협》으로 되는듯이 아부재기를 친것은 미국의 식민지하수인으로서의 자기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 그대로 실토한것외 다른것이 아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하면서 그에 대응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위협》으로 된다는 박근혜의 나발이야말로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고 리치에도 맞지 않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가관은 이번에 미국집권자도 입에 올리지 못한 우리의 핵에 대해 박근혜만이 쫄딱 나서서 시비질하며 《핵포기결단》따위를 운운한것이다. 그가 체면도 수치도 모르고 미국이 말 못하는 고민까지 대변하여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 하였지만 비굴하고 구차한 식민지피뢰의 그 가련한 처사는 사람들의 조소만을 자아냈다.

그런데도 피뢰집권자가 우리에 대한 《경제지원》을 떠벌인것을 보면 그가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과대망상증환자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정치적혼란과 경제위기, 인민생활파탄으로 들려오는것은 아우성뿐인데 그 누구를 위한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

피뢰집권자는 《대통령》감투를 따기 위해 실현불가능한 기만공약으로 인민들을 속여넘기던 그 본새로 우리를 어째보려는것 같은데 제코도 못 씻는 주제에 남의 부뚜막걱정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

박근혜가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려놓은것은 우리 천만군민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조선피뢰들은 신성한 인권에 대하여 말할 체면도 자격도 없다.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유신》독재부활로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인권불모지로 만든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 악명높은 《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러 진보적 정당, 단체들과 통일애국세력을 철창속에 가두고 언론을 《정권》의 어용나팔수로 만들었으며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마저 가차없이 탄압하고있는것이 바로 현 피뢰집권세력이다.

피뢰집권자는 말끝마다 《북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는데 그렇듯 인권에 관심이 있어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이 바다에 수장되여 죽어갈 때 7시간동안이나 얼굴도 내밀지 않고 원땅을 보고 청와대를 찾아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들여놓지조차 않고 쫓아버렸는가.

그런 인권유린의 왕초가 도리여 인민사랑의 화원인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파렴치하게 외곡하며 볼썽사납게 놀아댔으니 이 얼마나 비극인가.

박근혜가 《인권》문제를 걸고 감히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은것은 북남관계개선을 철저히 부정하며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다.

남조선집권자가 《도이췰란드통일이 새로운 유럽의 주추돌》이니 뭐니 하면서 저들이 추구하는 통일이 《새로운 동북아의 초석》이 될것이라고 떠벌인것도 스쳐지날수 없다. 바로 여기에 안팎이 다른 박근혜의 본심이 있다.

지금은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가 개선되느냐 마느냐 하는 매우 첨예한 시기이다. 온 겨레의 시선은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동족의 노력을 무시하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한사코 고집하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로 쏠리고있다.

바로 이런 때에 피뢰집권자는 우리에 대한 전례없는 도발적악담으로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과 북남관계파국을 선택하였다.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극도의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유엔무대에서까지 반공화국대결망발을 거침없이 내뱉은 박근혜의 처사는 북남관계의 파국이 왜 심화되고있으며 대화와 협력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박근혜는 세치밖에 안되는 혀바닥으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있다.

피뢰들이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대결에 계속 기승을 부린다면 그것은 자멸을 촉진하는 비참한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박근혜패당은 우리와의 정면대결을 선포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최 철 순

## 살인≪정권≫에 대한 남녘민심의 폭발

오늘 남녘땅에서 거세차게 전개되고있는 특별법제정요구, 책임자처벌, 살인《정권》퇴진투쟁은 바로 분노한 남녘민심의 폭발이다. 오늘도 유가족들은 단식으로, 각계층 민중들은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시위와 초불집회, 1 000만명 서명운동으로 항거해나서고있다.

유가족들의 단식롱성에 각계 단체성원들과 시민들이 합세하고있다. 투쟁참가자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제정을 위해 집권자가 결단을 내릴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특별법제정요구가 담긴 135만장의 서명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삼보일배(세걸음 걷고 한번 절하기)》투쟁에 나섰다. 서울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신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의 교수, 학생들은 집회를 가지고 《세월》호특별법제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횡포에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세월》호참사 151일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교직원로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동문회, 대학생련합 등 대학교수, 교원, 대학생단체 성원들의 초불집회가 열렸다.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는 분노한 민심을 현 《정권》심판에로 모아내는것이 바로 진보민주세력에게 주어진 시대적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는 현 《정권》이야말로 민영화로 공공부문 참사를, 간첩사건조작으로 인권참사를, 복지공약파기로 민생참사를, 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참사를, 어린 학생들의 수장으로 《세월》호참사를 불러온 참사 《정권》이라고 규탄하였다.

살인《정권》, 반역《정권》퇴진만이 살길이라는것이 오늘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피뢰패당의 반인민적정책이 빚어낸 대형려객선 《세월》호 침몰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백수십여일이 지나갔다. 그러나 피뢰패당은 아직까지도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온갖 패륜행위로 피해자들에게 두벌죽음을 가하고있다.

현 피뢰집권자가 이에 앞장서고있다. 지난 16일 집권자는 그 무슨 《국무회의》라는데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는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대통령이 할수 없고 결단을 내릴것이 안된다.》고 단언하였다. 이것은 제입으로 내뱉은 말을 제스스로 뒤집어엎는 유치하고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미 5월 16일 집권자는 청와대에서 유가족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특별법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유가족들의 마음이 잘 반영이 되도록 지원할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어 5월 19일 《대국민담화》에서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것》이고 《여야와 민간이 참가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것을 제안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이제와서 권한이 없다느니 뭐니 하며 참사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도를 가진 불순한 세력으로 모독하고있다. 《새누리당》 역시 참사문제를 두고 《유가족을 100% 만족시켜줄수 있는 안은 없다.》,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를 조사할수 있느냐.》고 떠들어댔다. 피뢰정보원을 비롯한 파쇼권력기관들도 투쟁에 나선 유가족들을 《로숙자》로 몰아대면서 탄압을 가하는 인권유린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이로써 특별법제정을 가로막고 이를 정치적으로 리용하는 불순한 세력이 다름아닌 현 피뢰집권자와 그 패거리들이라는 것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피뢰경찰을 단죄

4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사람일보》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피뢰경찰의 부당한 행위를 비난하는 학자 고승우의 글이 실렸다.

글은 최근 경찰이 북관련기사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기사삭제를 강요하는 행위가 전지역적으로 벌어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경찰당국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언론사들에 북관련기사 등을 삭제할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은 그 일부라고 언급하였다. 삭제를 요구한 기사의 대부분은 《련합뉴스》의 기사를 전재하거나 인용한것들이라고 밝혔다.

북과 관련한 소식을 입수하여 보도하는 기능을 공식 수행하는 《련합뉴스》의 기사들에 대해 경찰이 《친북관련내용》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정적조치를 취하는것은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였다.

경찰의 태도는 명백히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언론과는 거리가 먼 경찰이 나서서 기사삭제를 요구하는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시기에도 찾아볼수 없는 권력람용이라고 단죄하였다. 글은 경찰이 언론의 보도활동을 문제삼아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내외의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는 넉두리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번에 박근혜가 유엔무대에서 우리를 마구 헐뜯는 독살스러운 망발을 쥐친것을 보면 피뢰의 그 대결악습이 더 못되게 발작하는것 같다. 유엔에까지 찾아가 자기 동족을 걸고들며 돌아쳤다니 이런 미치광이는 보다 처음이다.

그 꼴은 또 얼마나 추한가. 《핵》이니, 《인권》이니 하며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돌아간 피뢰집권자의 꼴은 정말이지 시집 못 간 로처녀의 술주정이상으로서 보기조차 역겹다.

《세월》호참사, 피뢰군사병타살사건과 같은 저들의 숱한 골치거리들은 다 쥐버리고 동족을 해치려고 유엔에 찾아가 반공화국대결공조를 구걸하며 설쳐댄 그 몰골은 사면팔방으로 찌그러져가는 제 집안일은 아랑곳없이 밖에 나가 서방질에 미쳐돌아가는 계집의 추태와 다를바 없다.

지금 피뢰집권자가 반역통치로 하여 남조선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는가.

그런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도 샌다고 남조선에서 인민을 반역하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박근혜는 유엔을 찾아가서도 동족대결에 기승을 부려 만사람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것은 결코 속담으로만 대할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조선피뢰당국자의 대결광증은 우리 민족에게 재난을 몰아오는 커다란 화근이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이 재앙의 근원을 종처를 도려내듯이 제때에 단호히 제거해버려야 한다.

피뢰들이 아무리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광대극에 열을 올려도 소용이 없다.

남조선피뢰패당의 대결망동은 위대한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높이 받들고 우리 조국을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펴나는 행복의 락원으로 더욱 빛내여나갈 우리들의 결심과 의지만을 더욱 굳게 해줄뿐이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령대탄광 지배인 박 창 국**

### 달을 보고 짖는 개소리

피뢰당국자가 우리를 이러쿵저러쿵 걸고들었다는 소리에 분노가 치밀어올라 견딜수가 없다.

그가 유엔무대에서까지 치마바람을 일구며 우리의 핵억제력을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결고들고 핵을 포기하면 그 무슨 《지원》을 하겠다고 횡설수설했다는데 정말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노릇이 아닐수 없다.

낯가죽이 두껍다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도대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남조선에 방대한 핵전쟁장비들을 잔뜩 끌어다 놓고 미국과 야합하여 《키리졸브》, 《독수리》니,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니 하는 북침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며 전쟁의 불집을 터치지 못해 발광하는 피뢰들이 아닌가.

망나니도 나이들면 중이 된다는데 예순도 넘었다는게 아직도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경망스레 날치는 꼬락서니를 보니 정말 눈이 감기고 말이 나가지 않는다.

역도가 우리더러 핵을 포기하면 《지원》하겠다고 떠든것을 놓고는 쓴웃음밖에 나가지 않는다.

지금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부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은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그런데 제코도 변변히 씻지 못하는 미국의 노예, 구접스러운 식민지머슴군따위가 도대체 누구를 《지원》한다고 넉두리질인가.

피뢰들이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해 아무리 시비질해도 달을 보고 짖는 그따위 개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적들이 반공화국핵소동에 악착스럽게 매달릴수록 더욱더 강화해야 하는것이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이다.

남조선피뢰들이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대결책동에 갈수록 미쳐날뛰고있는 지금 전력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 나라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지고 원쑤들에게 징벌의 철추를 내리고야말 우리의 의지는 억척같이 굳세여지고있다.

박근혜역도는 경망스러운 입질로 하여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골수에 사무치게 체험하게 될것이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작업반장 박 금 혁**

## 무슨 체면에 《인권》타령인가

나이 예순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상사람들로부터 철부지 계집애취급을 받는 피뢰집권자가 제 망신하는지도 모르고 돌아가며 허튼수작만 늘어놓고있으니 정말 가련하기 그지없다.

얼마전 박근혜가 유엔총회에서 그 무슨 《북인권》이니 뭐니 하며 횡설수설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그 천치에게는 약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족을 비방하지 않고서는 오금이 저려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대결미치광이인지라 이미 세상이 저버린 인간추물들의 악담을 그대로 외워댄것이다. 그것을 보면 박근혜 역시 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몸뚱아리에 온통 매국배족의 구정물만 흐르고있으니 그 입에서 무슨 온전한 소리가 튀여나오겠는가. 게다가 야만적인 총칼독재통치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깡그리 말살하던 《유신》군사깡패의 더러운 피줄이 어디 가겠는가.

묻건대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라는게 정 인권을 론하겠으면 제 집안꼴이나 좀 살펴보고 입을 놀려야 하지 않겠는가.

사상 최악의 폭정으로 수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살인마가 무슨 체면에 《인권》타령인가.

《세월》호침몰사고가 있은지 반년이 되여오지만 유가족들의 통곡소리가 아직도 그칠새 없고 역도가 몰아온 경제파국과 민생파탄으로 온 남조선땅이 아우성이다.

실상 누구를 걱정하고 위할 처지도 못되는 주제에 제집의 꿰진 창호지구멍으로 남의 집대문 흉보듯 하고있는 남조선집권자야말로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인권유린왕초의 그 파렴치한 넉두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들에게는 박근혜의 악담이 늙고 병든 암고양이의 가냘픈 신음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훌륭한 인간중시의 사회, 인민들의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활짝 꽃펴나고있는 우리 공화국을 피뢰패당이 아무리 어째보려고 날뛰여도 소용이 없다.

박근혜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개꿈을 꾸며 느침을 흘리지 말고 인권피고석에나 앉아 산같이 쌓인 자기 죄를 반성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철도성 직맹위원장 리 승 권**

##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 열병식 진행, 새형의 무인기 공개, 암전문병원건설 착공

이란의 수도에서 22일 《성스러운 방위주간》에 즈음하여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하싼 루하니대통령과 정부성원들, 군부의 고위지휘관들이 열병식에 참가하였다.

열병식에서는 이란군과 이슬람교혁명근위대의 각 군종, 병종 구분대 그리고 경찰, 동원군종대들의 행진이 있었으며 이란이 자체로 개발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이 공개되였다.

이날 열병식이 나라의 많은 도시들에서 벌어졌다.

한편 이란에서 23일 새형의 무인기를 공개하였다.

이날 국방 및 무력병참성 부상은 대공미싸일들을 탑재할수 있는 이 전투용무인기가 수차례의 가동시험에서 통과되였으며 현재 군대에 납입될 준비가 되여있다고 밝혔다.

새 무인기의 도입으로 이란군 무인기들의 작전구역이 확대되고 적항공기들을 탐지, 추적, 요격, 파괴하는 능력이 높아지게 되였다고 한다.

또한 이란의 수도 남부교외에서 21일 암전문병원건설 착공식이 진행되였다.

이슬람교혁명지도자의 대외사업담당고문은 착공식에서 새로 일떠서게 되는 이 병원이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 우주개발노력

나이제리아가 우주개발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나라에서는 2018년까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위성을 설계제작하여 시험발사를 진행할것을 계획하고있다. 23일 정부는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므로 이 사업에 많은 자금을 돌릴것이라고 밝혔다.

### 여러 나라들 협조

로씨야와 남아프리카가 22일 원자력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브루네이가 23일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 화성탐사선 화성궤도진입에 성공

인디아의 화성탐사선 《망갈리안》호가 24일 화성궤도진입에 성공하였다.

지난해 11월 5일에 발사되여 이번에 화성궤도에 성과적으로 진입한 이 화성탐사선은 앞으로 6~10개월간 화성표면촬영과 대기성분정보수집 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 나라의 우주연구기관은 이에 대해 밝히면서 이번 성과가 나라의 우주과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적인 우려거리—싸이버범죄의 성행

인간생활의 한 부분으로 되고있는 인터네트가 범죄의 주요공간으로 리용되고있어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그 대표적인것이 싸이버범죄이다. 최근년간에 와서 그것이 더욱 성행하고있다.

싸이버범죄로 하여 많은 나라들이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입고있다. 한 국제조사기관이 밝힌데 의하면 세계적으로 년간손실액은 약 6 000억US$에 달한다고 한다.

일부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일랜드에서는 싸이버범죄로 해마다 6억 3 000만€의 경제적손실을, 영국에서는 최근년간 중소기업체들이 340억US$이상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1만 1 200건의 싸이버범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미국의 경우에는 더욱 한심하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미국은 1 000억US$에 달하는 자금을 손실당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싸이버범죄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형태를 띠면서 널리 확대되고있는것이다.

오스트리아신문 《크로넨 짜이퉁》이 전한데 의하면 싸이버범죄행위는 현재 대단히 넓은 범위에서 감행되고있는데 범죄자들은 싸이버공간을 돈벌이를 할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여기고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신문은 망사용자들의 5%가 자금횡령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전자우편을 받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우연한것이 아니다. 실지 해커들은 싸이버공간에서 피해자와 서로 얼굴을 맞대면하는 일이 없다는것을 리용하여 비교적 헐하게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피해자들은 일정한 기간 자기들이 해킹을 당하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있다.

몇몇 개인들의 해킹으로 시작된 싸이버범죄는 오늘에 와서 국가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제기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싸이버범죄를 막는다는 구실을 내대고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부 나라들을 지명하여 저들에게 싸이버공격을 들이댄다고 하면서 그것을 《전쟁행위》로 보고 무력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도 이 나라가 저들에게 싸이버공격을 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응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이란을 《싸이버범죄자》로 몰아 압박하자는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이란의 응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란민방위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자기 나라가 적들의 있을수 있는 싸이버공격에 단호히 반격을 가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싸이버공격이 이란이 슬람교혁명을 말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수단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란은 이에 대처할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들과 최첨단설비들을 가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의 민방위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해 언급하고 자기 나라는 싸이버공격에 반격을 가할수 있는 선진국들중의 하나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뿐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싸이버범죄방지라는 구실밑에 감행될수 있는 불순세력들의 싸이버공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로씨야에서 얼마전에 싸이버전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작전군이 창설되였다.

정보작전군에는 각 군관구들과 함대들에 있는 프로그람전문가, 암호전문가, 무선전자전군관 등 고급전문가들이 망라된다고 한다.

정보작전군의 기본임무는 싸이버테로로부터 로씨야군의 지휘 및 통신체계를 보호하며 이 체계에서의 정보무출을 차단하는것이라고 한다.

슬로베니아가 최근 싸이버안전보장을 위한 특수기구를 새로 설립하였다. 이 기구는 국가싸이버체계의 안전을 책임지고 싸이버공격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며 위험요소들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현실은 싸이버공간이 나라들사이의 전쟁과 대결, 충돌의 한 부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전문가들이 미래의 세계대전이 싸이버전쟁으로 될것이라고 한것은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인류의 문명과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선진 과학기술성과들이 범죄와 불순한 목적실현의 공간으로 되고있는데 대해 경종을 울리고있다.

본사기자 박 송 영

미 국 에 서 반 전 시 위

##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탄압만행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에 계속 광분하고있다.

22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의 중부앞바다에서 4명의 팔레스티나인어부들이 탄 고기배에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며 란동을 부리던 끝에 그들을 체포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만행은 현지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 인디아의 동북부지역에서 최근 폭우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큰물로 메갈라야주와 아쌈주에서 23일현재 2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마을들이 물에 잠겼다.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긴급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산불피해가 확대되고있다.

21일현재 불타버린 산림면적은 3만 3 150여ha로 늘어나고 2만 1 000동이상의 건물이 위험에 처하였다. 또한 약 2 700명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 필리핀의 남부지역에서 20일 리히터척도로 5.2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으로 4명이 부상당하고 150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다. 진앙은 키다파완시로부터 서남쪽으로 20㎞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다. 현지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 경제 침체

미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가 22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8월에 전국적인 살림집판매량이 그 전달에 비해 1.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주요소매업체들에서 8월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 떨어져 련속 5개월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 심각한 기아위기

남부수단에서 최근 기아위기가 악화되고있다. 23일 유엔아동기금은 현재 이 나라에서 수천명의 5살미만 어린이들이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말까지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겪게 될 주민수가 150만명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 경제형편에 비관

유럽인들속에서 경제형편에 대한 비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22일 발표된 한 국제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유럽동맹성원국들에서 현재 경제형편을 보여주는 소비자신용지수가 1개월전에 비해 1.6점 떨어졌다.

### 총기류범죄

미국 알라바마주의 버밍햄에 있는 한 공장에서 23일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날 40대의 남성이 자기 동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2명을 살해하였다. 그칠줄 모르는 총기류범죄는 미국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더해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41151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